2025. 12. 2

▲ 생활소비재
Analyst **박종대**
02. 6454-4892
jdpark@meritz.co.kr

RA **김건우**
02. 6454-4869
gunwoo.kim@meritz.co.kr

Overweight

화장품

11 월 화장품 수출: 유럽에서 중동/중남미로 확장세

- ✓ 전체 화장품 수출은 YoY 0.4%로 부진
- ✓ 생각해 봐야할 3가지: 비수기/환율/신규 카테고리 및 지역 확장 지속
- ✓ 화장품 산업의 계절성 확대 중, 11월 수출 수요는 비수기
- ✓ 환율 상승 감안 필요, 수출 중량은 YoY 8% 증가
- ✓ 샴푸/바디워시 계절적 영향보다 침투율 상승 효과가 컸음

전체 화장품 수출은 YoY 0.4%로 부진

2025년 11월 화장품 수출은 7.65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0.4% 증가에 그쳤다. 중국(1.06억 달러, YoY -35%)과 미국(1.24억 달러, YoY -4%), 일본(0.7억 달러, YoY -17%) 등 주요 지역 수출이 대체로 감소했다. 유럽은 여전히 좋다. 유럽 9개국 합산 수출액은 1.06억달러(YoY +24%)로 1억 달러를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. 특히, 실리콘투 유럽 물류센터가 있는 폴란드 수출이 YoY 160%(0.28억 달러)에 달했다. 중동(UAE 0.35억 달러, YoY +122%)과 중남미(멕시코 0.03억 달러 YoY 167%, 브라질 0.05억 달러 YoY 36%) 수출이 돋보였으며, 샴푸(HS 코드 3305, 0.17억 달러, YoY 24%)와 바디워시(HS 3401, 0.55억달러, YoY 51%) 수출도 호조세를 보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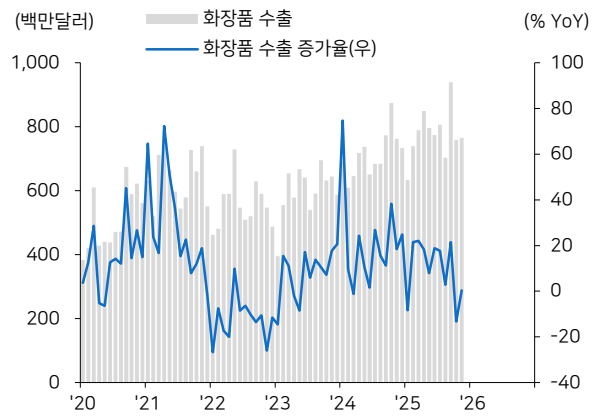
생각해 봐야할 3가지: 비수기/환율/신규 카테고리 및 지역 확장 지속

1) 화장품 산업의 계절성이 강해지고 있다. 11월~12월 블랙프라이데이를 대비한 수출은 늦어도 9~10월에 종료되었을 것이다. 미국 내륙으로 유통까지 감안하면 10월도 늦다. 11월~12월 수출은 연말/연초 '소비절벽' 기간 발생하는 일상적인 소비를 대비한 물량이다. 블랙프라이데이 판매 후 얼마나 재고가 남을 지 모르는 상황, 더구나 연초 유통업체들이 전년도 제조일자가 인쇄된 제품 팔기를 꺼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11월 수출 수요는 비수기로 상당히 작을 수밖에 없다.

2) 환율 상승을 감안해야 한다. 11월 평균 환율은 1,458원/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.6% 상승했다. 같은 물량이라도 달러 기준 수출 금액은 작을 수밖에 없다. 11월 화장품 수출을 중량 기준으로 하면 전체 수출은 YoY 8% 증가, 대 미국 수출은 YoY 17% 증가했다. 환율 이외에도 저가 제품 비중이 상승한 영향도 있는 것이다. 최근 미국으로 색조 카테고리 수출 호조, 초저가 시장으로 침투율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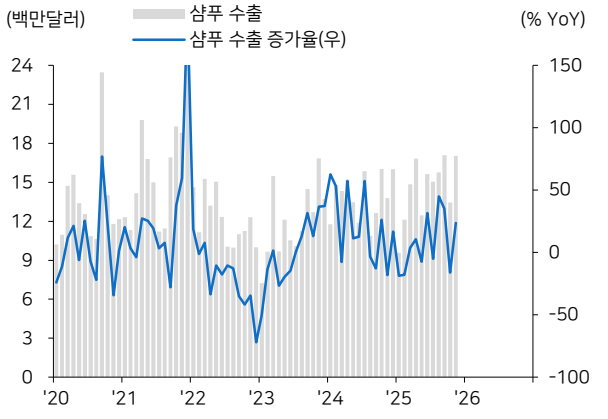
3) 샴푸/바디워시는 계절적 영향보다 침투율 상승 효과가 컸다. 중동과 중남미 높은 수출 증가율은 한국 화장품 산업의 외연이 확대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. 아울러, 폴란드/UAE 지역으로 수출 증가는 실리콘투의 1분기 높은 실적 모멘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.

그림1 화장품 수출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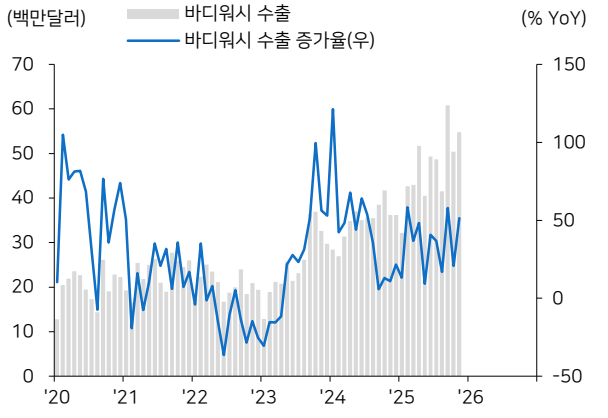
자료: 관세청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 샴푸 수출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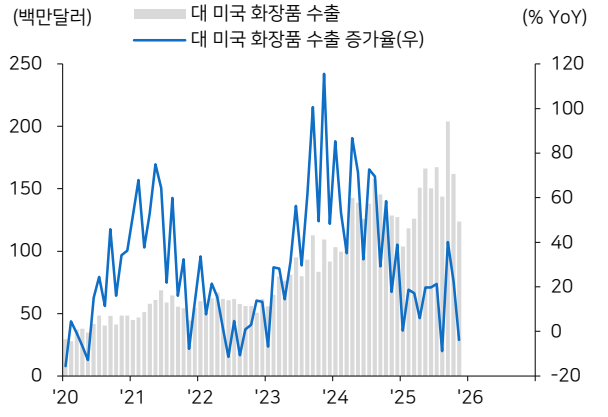
자료: 관세청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3 바디워시 수출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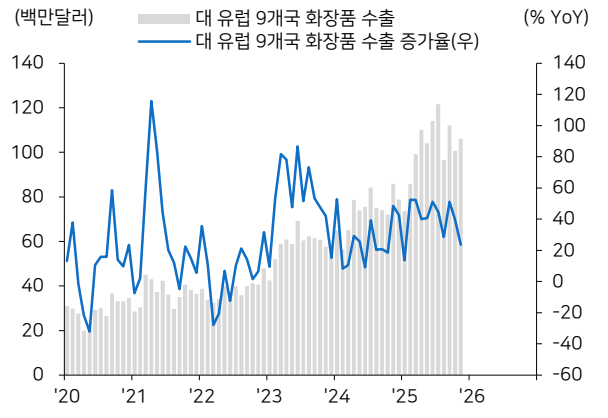
자료: 관세청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4 대 미국 화장품 수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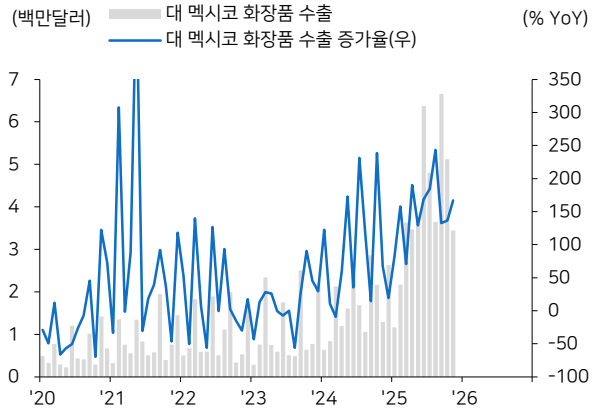
자료: 관세청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5 대 유럽 9개국 화장품 수출



자료: 관세청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6 대 멕시코 화장품 수출



자료: 관세청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